

2025년 11월 심인택 명예교수 편

녹음일	2025.10.12.10.13	방송일	2025.11.03.	장 소	풍류산방
제작진	기획 이주연 연출 이윤경, 고효상 작가 진경은 성우 김두리 구술채록 길현주 기술 박종일, 전하늘 영상 김경훈				

※ 본 채록의 저작권은 '국악방송'에 있으며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후학들을 지도하고 전북 지역 최초의 국악 단체를 창단하는 등 전북 지역 국악 저변확대에 기여해 온 심인택 교수. 그는 전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300여 곡의 국악 창작곡을 위촉하여 창작국악 활성화에도 힘써오고 있는데요, 정년퇴직 후엔 전북 김제에 마련한 소극장, 풍류산방에서 실내악단, '양상블 예루'를 창단해 매월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명인들의 진솔한 삶과 치열한 예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심인택 우석대학교 명예교수를 만나봅니다.

고향과 가족, 유년시절

저는 우석대학에서 국악과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현재는 전주시하고 붙어 있는 산자락에 살고 있는 심인택입니다. 제 고향은 충남 당진군 대호지면 마중리라는 아주 산골입니다. 집성촌이고 심씨만 사는 마을이예요. 총 6남매가 컸습니다. 맨 위애가 누님이고 그다음에 아들이 다섯인데 그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둘째 아들은 항상 해 달라고 막 졸라야 해줘요. 5형제가 크는데 어릴 때도 형님은 이부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형제는 요 하나에 이불 하나예요. 밥 먹을 때도 형은 아버지와 함께 겸상을 하고 우리는 막 떼거지로 앉아서 흥부네 집처럼. 그때는 그게 뭐 자연스러운 거였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제가 태어날 때 이미 교장 선생님을 하셨어요. 제가 54년생이니까 6.25 전쟁 끝나고 바로 태어났는데 5살, 4살 그때쯤인가 오르간¹⁾에 앉아서 노래 부르는 사진이 있었어요, 나는 나중에 커서 봤는데, 학교 선생님이 풍금²⁾ 치시고, 오르간이죠.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노래를 참 좋아하고 큰아버지 집에 명절 때나 제사 때 가면 큰어머니가 노래 하나 불러드리면 곳감 한 꼭지를 빼줘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곳감 먹으려고 노래를 끊임없이 해야 돼. 그러니까 레퍼토리를 많이 준비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곳감을 하나씩 주니까. 하여튼 노래 좋아했던 거는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아버지께서 트랜지스터 라디오³⁾ 조그마한 거를 사 오셨는데 쪽 듣다 보니까 5시에 어린이 방송, 지금도 다 아실 거예요. 그거 들으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놀다가도 5시쯤만 되면 집에 들어와서 라디오 틀어 놓고 듣고 그 자리에서 막 외우려고 애를 썼죠. 왜냐하면 그것은 금방 지나가면 또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동요 노래 책들을 여러 군데를 어디서 다 모아다가 음악 사전을 만들어 주셨어요. 기억 나온 디글 해가지고. 왜냐하면 '저요 저요 저요 무슨 노래예요?' '반달!' 그러면 빨리 '반달'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오르간이 욕심이 난 거죠.

그런데 오르간은 풍금이라 폐달을 밟아야 되는데 키가 작으니까 의자에 앉아서도 못 치고 항상 서서 폐

- 1) 피아노와 비슷한 건반악기이자, 바람을 보내 소리를 내는 일종의 관악기. 파이프 오르간이 대표적이며, 교회나 성당의 성가 반주악기로 많이 이용됨. 이 글에서는 맥락상 학교에 보급된 '풍금'을 뜻한다.
- 2) 풍금(風琴, Harmonium(독), pump organ; reed organ(영)). 발로 밟는 압축 풀무로 바람을 넣어 금속 리드(reed, 떨림판)를 통해 소리를 내는 소형 오르간. 19세기 초 유럽에서 개발되어 가정용, 작은 교회, 학교의 반주악기 등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 3) 이전에 있었던 진공관 라디오는 크고 무거우며 전력소모가 많았지만, 트랜지스터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1950년대 미국에서 개발되면서 라디오가 경량화되고 휴대성이 높아져 널리 보급되었다.

달을 밟아서 그 음을 찾아다니고. 그게 하루 일과 중에 나한테는 중요한 일과였었고. 언젠가 한 5학년 때? 4학년 때쯤인가 외삼촌이 교사였었는데, 오셔서 오르간 치는 법을 조금 가르쳐주고 반주 넣는 것도 좀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오르간이. 그래서 5, 6학년 때는 학교 3.1절 행사, 그런 학교 행사 때 그 반주를 오르간으로 제가 했어요. 선생님들 다 안 하시고. 나는 그때 오르간 치면, 전등이 없을 때니까 그냥 달밤에 체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컴컴한 방에서 막 오르간 갖고 음악을 내가 들은 기억대로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5학년 2학기 때 아버지가 또 전근 가셨는데 그 학교 교장실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아노라는 악기를 처음 본 거예요. 그다음부터 음악 공부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죠.

국악사양성소

(사람들이 보통) 국악이나 뭐 양악이나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부모님이) 서울 가져가지고 이제 음악 하는 학교를 찾다 보니까 중학교 과정에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⁴⁾라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피아노를 가르치더라. 그래서 국악사양성소를 들어가게 된 거죠. 학교가 운니동, 돈화문 앞 운니동에 있었는데 학교가 숲속이었거든요. 그때 교육 방법도, 뭐 지금 다 아시겠지만, 대금 부는 조창훈⁵⁾ 선생님이 관악기-기초 관악기조-대금·소금·단소. 그다음에 성악은 황규남⁶⁾ 선생님. 그다음에 무용은 김태섭⁷⁾ 선생님 뭐 이런 분들. 지금은 이제 다 연로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랬지만.

제일 신기했던 거는 조창훈 선생님의 교육 방법이었어요. 그분은 악기를 딱 던져주고 다음 주까지 불러와야 해요. 어떻게 분다는 얘기는 안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한 번 불러줘요. 이렇게 딱 한번 불러줘요. 이야 멋있다! 이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럼 누구를 찾아가요? 선배들 2학년 3학년이 있잖아요. 찾아가서 그 선배들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을 듣고) 해가지고 소리가 나면 곡을 하나 딱 줘요. 무조건 외워 와라. 그 한 주 동안 열심히 해서 외우면, 누가 먼저 할 것이냐 해서 (연주해서) 딱 합격! 그러면 이제 나가라고 그래요. 밖에 나가서 놀라고.

고3, 고2, 고1 이런 선배들이 토요일마다 학교 광장에서 연주를 해요. 우리는 항상 감상만 할 때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고등학교 3학년쯤 가면 국립국악원 정악 연주단⁸⁾ 수준까지 가죠. 그래서 고3쯤 되면 바로 연주단하고 같이 연주를 해요. 그 정도 실력을 쌓도록 만들어버리죠. 그게 또 돼요. 그게 아마 상당히 즐거웠던 시간이었다는 생각이죠. 그것이 이렇게 쪽 이제 국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된 것이죠.

나는 키도 작고 폐활량도 작고. 폐활량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평시조 '동창이'를 부르면서) 선생님이 시간을 재요. 30초 이쪽으로 서, 45초 이쪽으로 서, 해가지고 폐활량이 긴 사람이 관악기예요. 폐활량이 짧은 사람은 현악기 쪽으로 와야 되죠, 숨이 차니까. 대개 이렇게 좀 몸이 큰 애들은 폐활량이 아무래도 길죠. 그런 방법을 썼는데. 난 관악기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 나머지 악기가 이제 가야금·거문고·해금이거든요. 저는 아무 악기나 상관없다.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시키시는 악기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해금을 해라.' 그래서 해금 한 거였죠.(웃음) 제일 큰 거는 신체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금이라는 악기가 제일 나한테는... 그래서 선생님이 해금을 하라고 한 것일 수도 있죠.

4) 일제강점기 '이왕직아악부원양성소'의 후신이자, 현 국립국악중학교·국립국악고등학교의 전신. 1954년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로 설립인가를 받아 1955년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에서 개교. 1967년 서울 중구 장충동으로 이전. 1972년 국립국악고등학교로 개교. 1991년에 강남구 개포동으로 이전.

5) 조창훈(1941~):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예능보유자(2009년 지정).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 졸업. 광주시립국악원 원장 및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단장 역임.

6) 황규남(1947~): 국가무형유산 「가사」 전수교육조교.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 졸업. 국립국악원 정악단 악장, 지도위원, 예술감독 역임.

7) 김태섭(1922~1993):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처용무」 예능보유자. 이왕직아악부원양성소 졸업. 서울대학교 출강. 국립국악원 자문위원 역임.

8) 국립국악원 정악단. 국립국악원 전속 4개 예술단체(정악단, 민속단, 무용단, 창작악단) 중 하나. 1996년에 공식 조직 확립.

서울대학교 국악과

대학을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때 하고 똑같은 수업을 또 하는 거예요. 영산회상⁹⁾ 한 바탕 뭐 이렇게.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불만스럽다라고 해야 되나. 좀 다른 세계의 음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중고등학교 시스템이 좋았던 것이 음정만 1년, 서양 음악 음정만 1년, 음계만 1년, 그다음에 화성법.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위법까지 공부했어요. 그다음에 서양음악사도 국악사하고 동시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대학을 가니까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맨 뒤에 앉아 있다가 이제 이렇게 숙여가지고 내려가지고 기어서 나가죠 밖으로. (같은) 수업 또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대학 다니면서 아주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어요. 사실은 그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까 졸업한 뒤에 몇 년 지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더 열심히 좀 할 걸. 선생님한테 좀 미안하죠. 죄송하죠.

그 당시에 1년에 해금 전공자로 대학 들어온 사람이 둘 셋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서울대, 그다음에 생긴 대학이 이대, 한대 이렇게 돼 있으니까¹⁰⁾ 결국 해금쟁이 모아봤자 뭐 서너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전공 레슨은 옛날에 했던 것들만 다 그대로 하고 있지만, 이제 지금 (그 당시) 뭐 신국악연구회¹¹⁾, 무슨 창악회¹²⁾, 작곡가 모임, 교수님들 모임에서 해금 독주곡 이런 거 솔로들이 막 만들어지고. 결국 누군가를 시키게 되잖아요. 이해식 교수님이 저를 참 이뻐했었어요. 곡을 잊어버렸는데, 어떤 곡인가 하나를 내가 연주했는데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작곡하는 선생님들을 자주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악회¹³⁾ 이런 연주가 있으면 막 작곡가를 찾아가요. '선생님 독주곡 하나 써주시면 제가 연주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욕심이 상당히 강했었죠.

안식구를 만나다

제가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¹⁴⁾ 단원으로 있을 때 우리 안식구¹⁵⁾를 만났죠. 이뻐어요. 해금에서 난 꼴찌니까 8명 중에 맨 끝에 앉아 있었고, 우리 안식구도 가야금 중에 여섯? 여덟 명. 맨 끝에 앉아 있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면 딱 같이 맨날 봐요 요렇게. 무척 열심히 해요. 뭘 이렇게 열심히 할까.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악단에서 12시면 퇴근이거든요. 퇴근하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번 달은 영산회상. 한바탕 연주하고 1시쯤 나가면 이제 식당이 좀 비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안식구가 와 가지고 자기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나서 했는데... 이것도 참, 이거 남 이야기인데(웃음) 잘 외워요.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안식구하고 가깝게 됐었죠.

저는 약간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항상 뭐 하면 장난부터 치지 진득이 하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안식구는 내가 장난치는 게 싫지는 않았었는지... 그때는 참 어렵게 살 때잖아요. 집에서 연탄불에 (물) 댕혀서 그걸로 머리 감는데 세숫비누로 감으면 거품이 많이 나오니까 빨랫비누로 감아서 출근하고. 그것도 귀찮아 가지고 아침에 9시 반쯤 출근해 가지고 화장실, 세종문화회관 화장실에 샤워기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냥 세수하고 뭐고 다 하는데 수건이 없잖아요. 이제 그럼 막 나오면서 그냥 머리를 막 물을 터는데 하필이면 우리 '성애순'이라는 사람 앞에 가서 머리를 막 터는 거지.(웃음) 그렇게 짓궂게 해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어요.(웃음)

9) 영산회상(靈山會上)은 조선시대 정악의 대표곡으로 총 8~9곡으로 이루어진 모음곡. 석가모니의 영취산 설법을 기리는 불교 성악곡이 기원임. 현악 실내악 중심의 영산회상, 관현악 대편성의 평조회상, 관악 중심의 대풍류 등 다양한 편성이 있는데, 궁중과 민간에서 모두 즐겨 연주되었다.

10) 서울대학교 국악과는 1959년, 한양대학교 국악과는 1971년, 이화여자대학교 국악과는 1974년에 설립되었다.

11) 신국악예술인회(新國樂藝術人會). 1963년 서울대학교 국악과 첫 졸업생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악운동을 위해 젊은 국악인들이 모여 만든 단체. 한국 창작국악의 발전과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2) 창악회(創樂會). 1958년 조직된 현대음악 동인 단체. 새로운 우리의 음악과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관점에서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13) 신악회(新樂會)는 신국악예술인회.

14) 서울시국악관현악단(서울市國樂管絃樂團). 1965년에 창단된 한국 최초의 국악관현악단.

15) 성애순(1955~): 심인택의 배우자. 가야금연주자.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교수 역임.

우석대학교 국악과

84년도에 전국 국립대학교에 국악과를 만들면 예술대학을 설립해 주겠다 이래서 동시에 전국적으로 국립대학교에 예술대학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국악과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전북대가 국악과를 안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우석대¹⁶⁾ 서정상¹⁷⁾ 이사장이 우석대에서 만들겠다 해서 체육과 미술과 무용과 이런 게 예술대학으로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국악과가 만들어진 거죠.¹⁸⁾

그 당시 학생들은, 교수도 마찬가지로, 아침 9시에 1교시 하면 10교시까지 수업이 있었어요. 대학 수업이 아예. 그러니까 학점은 1학점으로 다 실기 수업으로 다 그렇게 2시간씩 늘려가지고 고등학교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들다 할 정도로 국악과 수업이 굉장히 컸었죠. 그런데 그 수업 과정이 결국 뭐냐 하면 국악중 고등학교 수업 과정 플러스 대학 수업 과정까지 포함을 시키니까 엄청난 수업량이지요. 그리고 정악부터 민속악 또 창작음악까지 모두 수렴하려니까 우석대 국악과를 키우려면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몇 번 요청을 해서 만나보니까 이사장을 설득시키면 만사 오케이더라고요. 이사장이 국악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사장이 어디까지 마음을 먹었냐면, 지금 남원에 있는 폐교된 대학인데 그 자리가 우석대 자리로 이사장이 한 번 잡은 적이 있었어요. 국악과를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악대학으로 만들어 주면 가겠다. 그런데 국악과 하나는 안 간다.’ 해서 결국 이사장하고 타협 본 게 현재 국악과 위치. 고속도로 건너편에 예술관을 지었고. 예술관 설계는 기본 설계는 내가 했어요. 과 하나가 200석짜리 극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관현악실 거의 70평, 그다음에 합주실 70평, 실내악실 20평짜리 2개, 개인 연습실 40개. 엄청 커요 학교가. 이 (국악)과가. 이사장이 그렇게 전폭적 지원을 해줬었죠. 그래서 그 학과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었던 거였었고.

전라북도립국악원, 전라북도 민간단체들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국악원¹⁹⁾. 내가 와서 86년도에 이제 현지를 쪽 보니까, 아 큰일 났다. 이 애들을 졸업시켜서 어디로 보낼 것인가... 그런데 마침 이제 황병근²⁰⁾ 당시 원장님이시죠 그분이 전북 예총의 국악협회 지회장을 맡고 계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한 다음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황병근 원장님이) ‘그러면 심교수, 나하고 둘이서 국악원을 만들자 한번. 도립(국악원)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둘이 의지를 합쳐 가지고 황병근 원장님은 도내의 행정 파트를 해결하고 내부적인 것은 내가 서울에서 최대한 도움을 받겠다(고 한 거죠). 제일 많이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은 박일훈²¹⁾ (국립국악원) 원장님이에요. 박일훈 원장님이 과장할 때인데 전주를 수차례 왔다 갔다 했어, 그것 때문에. 내 힘만 갖고는 안 되니까, 설득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황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민 1인 1악기’. 그걸 하도록 도지사를 설득했었어요. 도민 한 명당 한 악기를 교육을 시키겠다. 도립국악원에서. 그러니까 선생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1악기라는 거는 전공 파트죠 뭐. 가야금·거문고·판소리·민요·무용 여러 가지니까. 맞다 그것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도립국악원을 이렇게 키운 거는 사실 그 교수부예요. 교육 시스템이죠. 거기가 6개월짜리 (교육과정) 한 번 지나가는데 거의 2~300명씩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다 국악 팬이 되는 거에

16) 우석대학교(友石大學校). 1979년 설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소재의 사립 종합대학.

17) 서정상(1928~2002):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호남 최초의 약학박사. 우석대학교 설립자 겸 이사장. 초대 학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18) 우석대학교 국악과는 1984년에 설립되어 2015년에 폐과되었다.

19) 현 공식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1986년 전북도립국악원 설치 조례 공포 및 황병근 초대 원장 부임. 1988년 전북도립국악단 창단(수석:심인택).

20) 황병근(1934~): 1984년 전북 국악협회 지부장. 1986년 전북도립국악원 초대 원장. 1995년 전북 도의원 및 문화예술진흥발전특별위원회 초대 위원장. 전주세계소리축제 운영위원장 역임. 1998 (사)우리문화진흥회 이사장. 2001년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이사장. 2004 전북 예총 연합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21) 박일훈(1946~). 국악작곡가이자 행정가.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 및 서울대학교 국악과 졸업.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16대 국립국악원장을 역임하며 지방 국립국악원 설립과 국악방송 설립 등에 기여함.

요,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국악 발전을 위해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날 그야말로 서울 국립국악원 다음에 나는 전북 도립국악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규모를 만드는데 그분들 역할이 컸었고.

2년 정도 하고 이제 그만뒀는데 도립국악원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개천에 미꾸라지가 많아야 이무기가 살고 이무기가 살아야 용이 올라간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개천에 미꾸라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용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꾸라지를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했던 게, 실내악단이에요. 각 전공별 실내악단. 그래서 지금도 전라북도가 실내악단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한 4~50개 돼요 지금도. 그 애들을 움직이려면 도 문예진흥기금을 최대한 지원해 줘야 돼.

또 한 가지 내가 썼던 거는, 시인·문인협회에 지원금을 많이 줬지. 문인들이 되게 가난하게 살거든. 그러니까 문인들이 시집 내는 데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이거를. 그런데 마침 예총 이사하고 죽이 맞은 거예요 그 문제는. 막 두 달에 한 번씩 악단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필요한 것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조금 힘들긴 했지만. 지역 작곡가들의 특히 노래곡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시인 많잖아요. 대표적인 시인 신석정,²²⁾ 또 시인들 많은데, 이런 분들의 작품을 서서히 무대에 올리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악기를 사용해서 반주를 만들도록. 제일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지역 시인들이 흔히 그들이 얘기하는 국악-저는 '국악'이라는 거 보다 '우리 음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국악기에 자기 시가 노래가 된다! 그거 아주 감명 깊은 일이지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서 시인들이 국악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게 했고, 위촉을 했으니까 작시료를 드렸어요. 지금 기억으로 5만 원. 그다음에 작곡비를 또 줬어요. 작곡가들이 놀라는 거예요. 내 곡을 연주해 주는 것만 해도 그냥 고마운데 어떻게 작곡비를 줄 수 있느냐.

그때 실내악단을 만들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좀 지역 사회에서 관심을 끌 수 있을까 (고민하다 떠오른 것이) 전주 KBS였습니다. 전주 KBS에서 마침 그걸 내 의견을 받아서 '전주 KBS 국악실내악단'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KBS 이름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공연도 KBS 공개홀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권위자 선다고 해야 되나? 또 방송도 FM에서. 우리가 연주한 거는 지금 들어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연주했지... 그래서 그런 작업이 이제 세월로 따지면 한 삼십 년 넘게 지금까지 쪽 해오고 있었고. <전주여 영원하라>²³⁾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작품이거든요. 합창단 한 사 오십 명, 솔리스트 네 다섯 명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전주를 울리는 음악을 만들어서 정말 시민을 울렸어요.(웃음) 제 기억으로는 연주 끝나고 시민들이 안 가요. 너무 자기들은 가슴에 메이도록 (감동을 받아서요). 또 하나는 마침 그때 월드컵 경기를 할 때였었고 정부에서 월드컵 기념 문화행사비로 2억인가가 전주에 와서, 그걸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장편소설 최명희²⁴⁾의 『혼불』²⁵⁾을 다시 각색하고...

전주시립국악단

97년도에 (전주)시립국악단²⁶⁾을 만들었는데... 그때 시장님하고 예총 회장하고 도립국악원장이 민간인이 할 때였었어요. 만나자 그래서 갔더니, 시립예술단 4개가 있는데 그중에 민속예술단이 있다. 그러니 심

22) 신석정(1907~1974): 전북 부안 출생. 1931년 『시문학』으로 등단. 노장사상과 불교사상에 기반한 목가시인이면서, 현실비판의식을 드러내 정권의 탄압을 받기도 함. 전북 부안에 '석정문학관'이 있다.

23) 칸타타 <전주여 영원하라>. 김남곤 대본 & 김삼곤 작곡. 새로운 세기의 소망을 담아 2000년 신년음악회(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초연됨. 전주시립국악단·전주시립합창단·전주시립교향악단·전주시립국악원 창극단 등 다양한 예술단체가 함께 했다.

24) 최명희(1947~1998): 전북 전주 출생.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이후 17년간 대하소설 『혼불』 집필. 제11회 단재상 및 세종문화상, 호암예술상 수상.

25) 최명희의 미완성 대하소설. 1988~1995년 사이 월간 신동아에 연재되었고 1996년 한길사에서 10권의 결정본이 발간됨. 전북 남원을 배경으로 어둡고 억눌린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정신을 민속학·인류학적 기록을 통해 정밀하게 복원해낸 수작. 남원에 '혼불문학관'이 있음.

26) 전주시립국악단은 전주시립민속예술단의 후신. 1979년에 '전주시립민속예술단'이 비상임체제로 창단되었고 1997년 단원의 상임화를 거쳐 1999년 '전주시립국악단'으로 개칭하였다.

교수가 이 민속예술단을 다시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느냐. 만약 한다면 자기들이 시장님한테 적극 그거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민속예술단 하나는 안 하겠다. 교향악단, 합창단, 극단, 민속예술단 4개 단체를 나보고 활성화시켜 달라고 하면 해도, 민속예술단 하나는 손 안 댄다. 왜냐하면 이게 잘 되면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나 극단 쪽에서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 이거를. 그래서 4개를 다 활성화시키도록 하면 이 작업에 손을 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시장님한테 ‘그러면 저한테 주무관-그때 주사라고 그랬는데-한 명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작업 끝날 때까지 비밀로 해달라...’

그래서 그 작업을 한 1년 했어요. 4개 단체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해서 각 시도의 자료 다 모아 주사한테 통계 내라고 하고. 그런 자료를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시립예술단 상임단원 모집 공고가 난 거예요. 교향악단·민속예술단·극단·합창단. 그때 시장님하고 상임단원 (모집)하면서 (상임)지휘자도 모셔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래서 안 된다. 우리가 230명 정원 이예요 시 예술단이. 그 당시 조례로는. 3분의 2가 상임단원 될 때까지는 객원지휘를 써야 된다. 상임지휘가 와 있을 이유가 없거든. 왜냐하면 비상임이 더 많은데. 3년 걸렸구나 (상임단원이) 180명까지 가는데...

그런데 180명 가면서 그때 이제 소위 그 월드컵 경기장 지으면서 돈이 엄청 들어가가지고 도저히 이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보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 그거를. 그런데 그때 이제 <혼불>이 터진 거예요. 최명희의 『혼불』을 가지고 내가 음악극을 만들어야겠다. 6개월 만에 만든 거야 그 래가지고요. 그게 결국은 시립국악단의 역할이 분명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혼불>²⁷⁾의 의미가, 음악극도 음악극이지만 사실은 전주 시내에서 시립국악단이 자리매김하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97년도에 시립국악관현악단²⁸⁾이 다시 새로 또 탄생을 한 거죠. 덕분에 교향악단·합창단·극단은 심봉사가 눈뜨면서 옆에 있다가 눈뜬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덕분에 극단 친구들, 합창단 친구들, 교향악단 친구들이 심인택을 굉장히 좋아했었죠.(웃음)

그리고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끝나고 나서 서울에서 아주 히트된 작품이, 박범훈 작곡 김용옥 극본으로 만들어진 <천명>²⁹⁾이 서울 국립극장에서 대박이 났죠. 그래서 내가 가서 그걸 봤어요. 아, 이 <천명>을 전북으로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김완주 시장³⁰⁾을 만나가지고 ‘<천명>을 전주에서 공연해야 된다. 이거는 서울에서 공연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이게 설득이 됐는데, 하려니까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항상 급하게 뭐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전주시장이 광주시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광주서 공연, 전주서 공연해 가지고 간신히 그때 수역을 마련을 했어요. <천명>에 들어가는 인원이 얼마나 많으면, 한옥마을에 있는 호텔 객실을 다 써도 그 인원을 못 채우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그 공연을 어디서 했냐 하면 삼성문화회관³¹⁾에서 한 거예요. 전북대. 무대가 작아가지고 합창단이 못 들어와요 무대에. 분장실에서 지휘자 사인보고 합창단이 노래할 정도였었고. 그게 또 전주에서도 대박이 났죠.³²⁾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아, 우리도 대극장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³³⁾이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명칭을 사실 제 연구실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게. 그때 시즌이 전라북도 전주를 중심으로 한 국악의 봄이 짝 올라간 시즌으로 보죠.

27) 대서사 음악극 <혼불>. 최명희 원작의 『혼불』을 바탕으로 시인 이병천이 대본을, 지성호가 작곡을 맡았음. 2002년 월드컵기간에 초연. 이후 전주세계소리축제 등 다양한 무대에서 수차례 재연.

28) 전주시립국악단. ‘전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비공식적 이칭(異稱)임.

29) 음악극 <천명(天命)>. 동학(東學)혁명 소재. 1994년에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초연. 이후 1998년 국립극장에서 국립창극단의 레퍼토리로 재연.

30) 1998년 당시 전주시장(1998~2006년 재임)

31)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혹은 전북대문화관(약칭). 1998년 건립. 영산홀(대극장)·건지아트홀(소극장)·전시실 등으로 구성됨.

32) 1999년 2월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국립극장 초청공연으로 <천명>이 전주와 광주 무대에 올랐다.

33)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 덕진구 소재. 1998년 착공하여 2001년 공식 개관. 모악당(대극장)·연지홀(중극장)·명인홀(소극장)·야외공연장 등으로 구성됨.

광주시립국악단

예. 제가 전주시립국악단을 7년 근무했습니다. 만드는 것까지 하면 8년이 넘죠.³⁴⁾ 그거 끝나고 이제 쉬려고 그만하고 (나왔는데) 바로 광주문화예술회관³⁵⁾에서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광주 시립국악관현악단 좀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했는데, 사실은 (제가 전주 시립국악단에서 근무)할 때 안식구가 전남에 있으니까 전남의 문화예술계의 중요한 사람들이 <혼불>, <매창 뜬에 이화우 흠날릴 제>,³⁶⁾ 뭐 다 모악당³⁷⁾(에서 공연)할 때마다 왔었죠. 그분들이 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너무 전주가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광주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만나서, 내가 관장을 만나겠다 그래서 관장을 만나서 '내가 시립국악단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가 좀 쉬고 싶어서 그만둔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광주로 오게 되면 전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저는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절한 뒤) 이제 4년이 지났는데 다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다시 와 달라. 아 이 사람들이 왜 그러지 자꾸 나를. 4년 뒤에 다시 (연락)하는데, 나를 데려간다 모셔온다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객원지휘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객원지휘 레파토리는 내가 짜겠다. 광주에서 짜는 걸로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객원지휘 때 <춘산에 붙는 그 불>³⁸⁾이든가, 그게 이제 전라 광주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³⁹⁾의 시예요. '춘산(春山)'은 무등산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에) 가서⁴⁰⁾ 첫 번째 했던 칸타타⁴¹⁾가 <빛빛빛 빛이 되라 하시네>⁴²⁾. 그 타이틀로 거의 한 70분 정도 칸타타로. 전남대 판소리 전공자 다 모아가고 판소리 합창단 만들고 전주에서 또 보완해 가지고 그거를 아주 크게 터뜨렸었죠. 그다음엔 큰 행사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에요. 광주항쟁 30주년 기념으로. 그런데 그게 보고서가 올라갔는데 <님을 위한 행진곡>은 안 된다⁴³⁾ 그래서 이제 관계 기관이요? 시청이 아닌 다른 관계 기관하고 계속 접촉하고, 단무장이 정말 불쌍하게 끌려가서 맨날 혼나고 오고. 그래서 결국 타협 본 게 <오월 광주, 이 땅에 살으리라>⁴⁴⁾로 이제 타이틀을 바꿨죠.

작곡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하다가, 지금도 참 가슴이 메이는 건데, 황호준⁴⁵⁾이 생각이 난 거죠. 그 황호준 아버지가 황석영.⁴⁶⁾ 지금 문화예술회관⁴⁷⁾ 소극장 자리가 황호준 집이었거든요. 황호준 한테는 어릴 때부터 그 터가 자기한테 가슴이 메이는 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황호준 만나고 작곡 구도 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전화를 했더니, 막 올라가면서 자기가 이런 계기가 온 것이 정말 감사하다고 최

34) 1997~2003년 기간 동안 전주시립국악단 초대 상임지휘자로 재직.

35) 현 광주예술의전당.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1991년 개관. 대극장·소극장·전시실 등으로 구성됨. 교향악단·창극단·발레단·국악관현악단·합창단·극단·오페라단 등 광주의 다양한 시립예술단체들이 상주.

36) 국악 칸타타 <매창 뜬에 이화우 흠날릴 제>. 조선시대 기생이자 여류시인인 이매창의 시 & 김선 작곡으로, 판소리 독창 및 판소리합창으로 구성된 대작. 2003년 전주국악실내악단이 초연.

37)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극장

38) <춘산에 붙는 그 불>. 문병란 작사 & 김삼곤 작곡. 평등과 자유의 상징인 무등산의 아름다움과 광주정신을 표현함. 위촉곡으로 2009년 심인택 상임지휘자의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취임기념연주회에서 초연.

39) 문병란(1935~2015) 전남 화순 출생. 1952년 『현대문학』에 등단. 문단 및 작품 활동 뿐 아니라 사회활동도 왕성하게 전개하였다.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광주문인협회 고문, 전남문인협회 자문위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광주지회장 등을 역임

40) 2008~2012년 기간 동안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단장/상임지휘자로 재직.

41) 이탈리아어로 '노래하다'(cantare)에서 유래한 장르. 한자어로는 '교성곡(交聲曲)'이라고도 하며 소리를 주고 받는다는 의미. 관현악이 반주하며, 독창·중창·합창을 포함하는 규모가 큰 성악곡.

42) 칸타타 <빛빛빛 빛이 되라 하시네>.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노래한 작품. 김삼곤 작곡.

43)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금지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어졌다.

44) <오월 광주, 이 땅에 살으리라>. 4개의 악장과 프롤로그 및 에필로그로 구성된 대작. 관현악과 노래가 함께하며 80년 오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

45) 황호준(1972~): 국악작곡가. 오페라·창극·뮤지컬·연극 등을 넘나들며 폭넓은 창작 작업 중. 2019년 대한민국 작곡상, 2013년 KBS 국악대상 작곡상 수훈.

46) 황석영(1944~): 소설가. 1962년 11월 『사상계』에 등단. 대하소설 『장길산』 등으로 민중작가의 면모를 구축. 한국 현대 문학계에서 리얼리즘 대표작가로 꼽힌다.

47) 현 광주예술의전당.

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공연이 끝났고.

두 번째는 단무장을 통해서 5.18 행사 의식 음악을 국악관현악으로 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또 단무장이 관계 기관하고 계속 접촉해 가지고, 5.18 추념행사죠? 추념 행사의 모든 의식 음악은 국악관현악으로 갔고. 그다음에 5월달 프로그램 할 때 5.18 기준으로 전 전 날이든 후에 전 전 날이든⁴⁸⁾ 대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제목을 바꿔버린 거죠.⁴⁹⁾ 거기에서 솔로 노래한 사람들은 황호준 집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 목사 그다음에 장학사, 안산의 중소기업 움직이는 누구 3명 정도가 그때 녹음한 사람들이예요. (당시에) 카세트로 녹음⁵⁰⁾해 가지고 퍼뜨린 사람들인데, 노래 잘 할 일 없잖아요. 이제 그분들 다시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고.⁵¹⁾

그다음에 생각했던 것이, 이제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그거는 사실상 단원 증원 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부시장을 만나서 20명 증원을 해줘라. 그럼 80명이 되는 거죠. 그거는 부산이 90명 대구가 75명 우리가 60명. T/O⁵²⁾가 현재. 물론 T/O도 다 못 채웠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솔직히 얘기했죠. 내가 이러저러해서 그만둡니다. 그런데 내가 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20명 증원을 해 주십시오. 부시장이 계시실 때 20명 조례만 바꿔주면은, 세월이 지나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 메꿔줍니다. 이제 부시장이 안타깝죠. 지휘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그래서 예술회관에 국악관현악단 20명 증원 작업을 해라...

그런데 그 소문이 짝 나잖아요. 합창단, 무용단, 창극단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무리한 게 그쪽은 10명씩 증원하고 국악관현악단만 20명 증원해서 T/O가 지금 80명이예요. 지금 거의 다 찼어요. 이게 80명 차니까 요즘 내가 광주 거 구경 가면은 포만감을 조금 느끼죠. 아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그런 몇 가지가 내가 광주시립의 단장으로 가면서 그래도 보람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광주 가면은 그 단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원들 대한영이죠.(웃음) 그런 거가 광주 가서 내가 한 일 중에...

건강에 이상이 오다

우석대 오기 전에 서울시립⁵³⁾ 다니면서... 누구나 다 욕심이 있죠. 적어도 '해금' 그러면 '심인택'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싶어 가지고 열심히 작곡가들 찾아다니면서 '해금 독주곡 써주면 제가 연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독주회를, 1회 독주회는 79년도에 했고 2회 독주회를 전주에서 시작한 거죠. 예술회관에서 하고. 제가 6회까지 독주회를 했어요 매년 한 번씩. 그런데 독주회 할 때마다 사실은 순회 연주까지 했죠. 여기서 끝나면 (다음 독주회는) 남원으로 가고, 광주로 가고. 광주는 금호아트홀이라는, 금호재단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하고, 남원은 사랑방 음악회처럼 했었고.

근데 참 몸 관리를 못한 거죠. 학교 일하랴 밖에 일하랴 하다 보니까 시내 나와서 일 보고도 한밤중에 다시 학교 들어가 가지고 연습하고. 그때는 뭐 거의 11시 12시 막 이렇게 퇴근할 때였거든 그냥. 그런데 이제 (독주회) 6회 때인가 5회 때인가 광주에 연주하러 갔는데, 산조 중중모리 들어가는데 손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가 팽 돌아버리는 거야. 이게 이렇게 악기를 잡잖아요. 잡으면 악기가 무릎에서 팽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했는데 그때부터 손이, 손가락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간신히 끝내고 정형외과 가서 보니까, 디스크는 디스크인데 자기로

48) 5.18 전후 1~2일

49) 2010.05.20.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공연.

50)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1년 소설가 황석영과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 김종률 등 광주지역 노래패들이 공동으로 만든 노래 <넋풀이-빛의 결혼식>에 삽입된 마지막 곡. 이 노래군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중 계엄군에게 사살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과 들불야학에서 활동한 노동운동가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됨. 감시를 피해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던 소설가 황석영 자택에서 비밀리에 녹음되었으며, 이후 카세트테이프 복사본, 악보 필사본, 구전 등을 통해 민중가요로 널리 유포되었다.

51) 1981년에 노래군 <넋풀이-빛의 결혼식> 테이프 제작에 참여한 이들 중, 오정목(오미디어넷 대표)·임희숙(전남교육연수원 연구사)·김은경(목사)이 이 공연 무대에 섰다.

52) T/O(Table of Organization). 조직 정원

53) 서울시국악관현악단. 1965년에 창단된 한국 최초의 국악관현악단.

서는 어디가 디스크인지를 못 찾겠다. 방법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땀 날 때까지 운동하는 것 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운동을 시작했죠. 일요일 날은 등산 하루에 7시간, 또 평일에는 골프 연습장 가서 땀 날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거 뭐 잘 때리고 못 때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시립국악단⁵⁴⁾ 그만두던 해죠. 그 가을에 집에서 자는데, 떨어졌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침대에서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반쪽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저림 현상이. 그래서 간신히 한쪽으로만 걸어가지고 화장실 가서 이제 샤워기 틀어 놓고 뜨거운 물 찬물을 번갈아가면서 해 가지고 일단 나온 다음에 전북대 병원을 갔죠 신경외과를. 그랬더니 디스크가 지금 너무 악화돼 있다 그래서 내가 그다음에 가서 약기를 갖고 '내가 이거 하는 사람인데 이게 손가락이 내 명령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이거를 더 고치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는 이거는 못 고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해본 일이 없어가지고 못 고치고, 저림 현상은 분명히 고쳐주겠다. 근데 분명히 고치고, 고치는 데까지 2년이 걸리니까 수술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 사표 내면서 전북대 병원에서 수술을 했죠.

그게 사표 내는 핑계가 된 거예요. 그 전에 또 사표 내기 위해서 전북대 박사과정 국문과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시(市)를 설득하려고. 내 몸이 지금 이런 상태고, 또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에서 1년을 기다릴 테니 1년 뒤에 다시 와 달라 그래서 그건 1년 뒤에 가서 볼 문제고. 그래서 일단 사표 수리가 끝나고 1년 동안 악단은 객원지휘 체제로 갔죠.

그래서 수술 끝나고 아닌 게 아니라 한 2년쯤 지나니까 저림 현상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끝난 뒤에 이제 담당 의사 만나니까 자기는 이거는 자신이 없대요. 그런데 곰곰이, 내가 우리 해금하는 연주자들 뭐 바이올린 하는 연주자들을 만나보니까 나 같은 일이 다 있는데 빨리빨리 병원을 간 거야. 나만 병원을 안 간 거죠 이게. 그래서 조금 복구는 됐는데, 미세한 음을 하나를 쪽 늦게 끌면 소위 말해서 1분도 끌어줘야 되는데 한 5~7초만 가면 손이 탁 풀리는 거예요. 명령대로 안 가고. 그래서 내가 탄 짓거리 하다가 해금을 결국 못하고 마는구나...

그렇게 해서 사실은 2000년대 들어와서는 거의 해금은 그냥 강사로 모든 걸 다 처리하고. 내가 가르칠 능력이 없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 몸 건강 관리를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결국 해금은 내 전공 악기이긴 하지만 이제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건 좀 아쉽죠 사실은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간에 다른 영역은 내가 상당히 많이, 내 나름대로 빈 자리가 어디인지, 어디를 메꿔야 하는지, 이래서 막 설득을 하고 해서, 전주가 참 신났던 도시 중에 하나죠...

전주에서의 각종 기획들

그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또 우진문화공간⁵⁵⁾이잖아요. 우진문화공간을 내가 우진문화 회장님하고 9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가 딱 20년. 기획자라고 해야 되나, 프로그램 이런 거 다 짜고. 20년 뒤에 이쪽으로 사무실이 커지면서, 극장이 만들어지면서⁵⁶⁾ 이제 내가 이것도 손 뗄 때가 됐다.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지금 잘 끌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소리 우리가락' 그다음에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 이게 지금 30년이죠. 30년 넘도록 한 해도 거른 적이 없어요.⁵⁷⁾

'우리소리 우리가락'에서 뭘 만들어냈냐 하면 기악계의 명인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 친구들이 그 당시에 다 그렇게 해서 대학 강사 나가고 지금 악단에 악장, 수석급들이 다 그 친구들이예요. 철저히 솔로 중심으로 간 거예요 그거는. 그다음에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은 한 번은 명인들, 한 번은 30~40대 정도 돼서

54) 전주시립국악단.

55) 1991년 우진건설 김경곤 회장이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설립한 문화공간. 전주시 진북동 소재.

56) 2010년에는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이 건립되었다.

57)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은 1991년부터, '우리소리 우리가락'은 1995년부터 시작된 우진문화공간의 대표적인 기획 공연 프로그램들이다.

앞으로 이 사람이 판소리계에 뭐가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있는 사람들을 돈을 쥐가면서 무대를 세우는 거니까, 우리가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게. 명맥이라도 계속 이어가는 거가 우진문화재단에서 가장 큰 일이었었고.

어쨌든 간에 국악계 쪽에서 보면 큰 역할을 해준 거였고. 물론 초창기에 저까지 오는데 고생은 했지만, 그야말로 참... 그렇죠 내 돈 써가면서 한 거니까 뭐 그거는.(웃음) 하여튼 간에 대단한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있고요).

그 아쉬움이 남은 게 이거죠. 내가 손 떴다고 생각하고 나서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풍류산방'.⁵⁸⁾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우리 건물 명칭은, 큰 명칭은 '풍류산방'으로 이름을 지었고. 제가 전주 와서 활동했던 민간단체 중에 전주국악실내악단⁵⁹⁾, 이후에 만들어진 나라국악관현악단⁶⁰⁾ 연습실 겸 공연장, 그다음에 우리 안식구가 가야금 전공자로서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연습 겸 공연, 그다음에 이 풍류산방의 전속으로 연주하고 있는 앙상블 '예루'⁶¹⁾. 실내악단입니다. 그 팀들이 이 소극장을 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루'는 예술하는 무대. 우리가 '광한루' 뭐 이렇게 하듯이 예술하는 무대인데, '풍류산방' 그러면 한옥을 그리게 되고 큰 대청마루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막상 와 보면 일반적인 소극장 같이 만들어져 있기는 하죠.

그런데 '예루'는... 80~90년대에 그 당시 이제 전주대학교에 작곡하는 김광순⁶²⁾ 교수님이 계셨었는데 저보다 4년 선배입니다. 그분하고 함께 이제 전주 시내 중앙동에 지하에 한 30평 정도 자리에다가 '예루 소극장'⁶³⁾을 저와 함께 한 20년 가까이 운영을 했죠. 그때는 80년대니까 전주에는 소극장이라는 개념도 없었을 때였고 또 실내악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였고. 그렇게 둘이서, 선배님하고 같이 그 작업을 쫓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전통문화센터 한벽극장이 만들어지고 또 삼성문화회관 건주(아트)홀 만들어지고 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이 만들어지면서 그 (예루 소)극장이 이제 조용히 이제 문을 닫고...

그러고 한 또 15년이 지나서 제가 정년퇴임하기 전부터 이제 다시 그 꿈을 바로 이 산자락에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좀 오랜 시간 동안 건물을 조금씩 조금씩 짓기 시작했죠. 우리가 주최하는 연주회는 한 10회 이상은 해요. 거의 매달 한 번씩 하는 거 하고, 그런 소규모 음악회들하고, 그다음에 대관 프로그램이 있는데 독주 뭐 독창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분들, 또 연구 발표하고. 그래서 보통 한 달에 두 번 세 번 정도는 현재 사용하고 있죠.

내가 평생을 교직에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사람을 키운다는 데에 가장 큰 포인트가 있다... 내가 크지는 않지만 작게라도 전라북도의 문화예술을 작게라도 이거를 꾸준히 끌고 나가서, 언젠가 그분들이 과거에 전주의 전통 음악으로서의 역할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어쨌든 이제 이 풍류산방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나 하는 게 가장 크죠. 또 왜 거기에 이렇게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는 심인택 개인의 어떤 애착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동참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 나도 그걸 항상 다시 한 번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죠 그거를. 글썄요 이제 우리가 경제 사회에서 살면서 경제적으로 손익을 분명히 사람들이 계산할 텐데, 아직은 젊어서 그것까지는 내가 계산을 하기 싫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고...

보람되죠. 전라북도 뭐 큰 여행은 아니라도 지나가면은, 아! 이 부분이 우리가 과거에 노래했던 그 지역이고, 또 그런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데고. 그럴 때마다 나 혼자 느끼는 만족감은 솔직히 커요 그제. 그런데 주변 사람들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아무튼 무대의 예술화 작업을 한다는 것은 다

58) 전북 김제시 금구면 소재.

59) 1992년 민간단체로 설립(심인택 단장/상임지휘자).

60) 2012년 사단법인으로 설립(심인택 이사장).

61) 2025년 창단. 정기연주 시리즈 '예루 공감' 운영.

62) 김광순(1952~): 전주대학교 음악학과 명예교수.

63) 1987년 개관

고통스러운 일들인데, 작곡가는 작곡가대로 고통스럽고 연주자는 연주자대로 힘들고. 그러나 그분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 그 작업을 한 것이 정말 보람됐었다 돌아가는데. 그런 느낌을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작곡가는 전북 지역의 문화 예술을 활성화시키는 일, 크게는 대한민국의 양악-그들이 얘기하는-쪽, 또 우리가 얘기하는 국악 쪽에서 그런 문제들을 고민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결국엔 국악 인구를 늘리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음악 활동하는 사람들을 우리 음악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더 급한 일이다.

나는 계속 앞으로 갑니다. 어쨌든 앞으로 간다는 거죠. 따라오는 사람들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앞으로 가는 것이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도 지역 문화 발전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분명히 좀 알아야 된다. 서울과 동일하게 가는 것이 지역 문화 발전은 절대 아니다. 또 지역 문화 발전을 한다고 그래서 서울 쪽하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글쎄요, 제가 이제 남은 시간이 앞으로 얼마큼 남아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는 하죠, 주변 사람들 하고. 내가 세 다리로 걸을 때⁶⁴⁾는 안 할 것이다. 지금 두 다리로 걷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세 다리로 걷게 되면 내가 안 할 것인데, 분명히 이 작업은 누군가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툭툭 던지면서. 이것도 사람들은 또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재산으로 계산하고. 물론 이게 조그마한 집이지만. 내가 만약에 세 다리로 걸을 때쯤 되면 누군가한테-우리 식구가 아니더라도-이 작업을 하도록 끌어들이고, 하도록 내가 지원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여지껏 이렇게 보면 참 행복하게 잘 살아왔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잘 살아왔었던 것인가. 물론 가족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음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소리 뽕뽕 쳐가면서 부러움 없이 살고 있는 것인데, 내가 무슨 더 욕심을 내겠는가. 그래서 그야말로 이 공간은-내가 능력이 있으면 공간을 더 넓혀주죠-이것은 공동의 특히 공연 예술 쪽의 창작자들한테, 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내가 준비는 다 해 줄 것입니다.

예술인 가족

우리 집 자식으로서는 아들이 있고 딸 둘이 있죠. 나는 내 자손이 내가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내가 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뭐 돈을 주겠어? 줄 게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 아버지 거 줄 게 뭐가 있느냐? 엄마 아버지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좀 반대도 있었죠 집에서. 어릴 때는 음악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연주회를 많이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도 했었고. 지금 전주시립국악단 지휘자 맡고 있는 심상욱⁶⁵⁾이 큰아들이죠. 딸⁶⁶⁾은 덩달아 오빠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똑같이. 어학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하고 영어가 수업에 해당이 돼 가지고 전남대에서 외국인 수업 와가지고 일 년인가 이 년인가 우리 문화 관련되어 있는 '한국 음악의 이해' 수업. 그건 이제 영어 중국어로 동시 수업하는 거거든. 전남대는 근 10년 가까이 이 수업을 했죠. 연대는 지금 3년인가 4년째 해서 그 수업 기간만 나오고 나머지는 지 신랑이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우리 집 며느리⁶⁷⁾도 해금 전공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국악집안으로 보는데, 그렇게 각자 알아서 잘 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그렇게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음악하는 사람들이라.(웃음) 가족은 그렇게 성장을 잘 해서...

64) '세 다리로 걸을 때'는 지팡이를 짚으며 걸을 만큼 노쇠해진 시기를 뜻함. 고대 그리스 신화 중 스프링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낸 수수께끼 즉 '처음에는 네 다리, 다음엔 두 다리, 마지막엔 세 다리인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인용한 것. (답은 '사람'으로, 이는 인생의 단계적 변화를 은유한다.)

65)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서울대학교·대학원 졸업. 한양대학교 박사. 현 전주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2019년 부임).

66) 심상윤.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서울대학교·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음악학박사, 현 연세대학교 국제처 객원교수.

67) 구수정. 음악치료사 및 음악평론가.

남기고 싶은 이야기

저는 어릴 때부터 하여간 음악 또 노래를 좋아해서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하고 싶은 음악 다 해봤고 하고 싶은 일도 다 해봤고 많은 세월을 지냈고, 처음 이렇게 정년 퇴임하고 나서 뭘 할까 고민도 해본 일도 없고 아직도 그냥 현역같이 살고 있긴 하지만, 후학들한테는 이제 내가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것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죠. 내가 뭐 선생으로서 선배로서 모범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그건 뭐, 그렇게 참 살려고 애를 많이 써요 사실은.

이거는 혹시 제 말 끝까지 들어보면은... 본인 스스로 내가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뒤늦게라도 내릴 수 있으면 좋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음악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음악을 해야 될 사람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분명히 하고. 분명한 건 그래서 '음악으로 내 인생을 마감하겠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감당을 못 해요. 그 성과가 분명히 보인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후학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고. 그게 제일 큰 보람이고 제일 큰 행복이다. 그런 거를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